【2012. 11. 15(목) 강원일보】 - ①

도 내년 주요예산 국회상임위서 3,150억원 증액

도-도 정치권 협력 정부부처·국회상임위 등 수시 접촉 결실

올림픽 예산 617억원·SOC 관련 대폭 늘어·신규예산 확보도

1차 관문 통과 성공적 향후 예결특위 등서 초당적 협력 중요

도와 관련된 내년 주요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증액됐다.

14일 국회 상임위별 주요 예산반영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예산을 617억원 증액하는 등 총 3,15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의 경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5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 15억원을 반영한 것을 비롯해 동해중부선 500억원, 동해고속도로 239억원,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577억원을 대폭 증액했다. 국도 확·포장사업 역시 국도 38호선 600억원, 국도 31호선 115억원, 국도 42호 100억원, 춘천 국지도 70호선 80억원을 늘리는 등 모든 국도 예산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예산과 관련해 경기장 건설 398억원, 경기장 진입도로 219억원 등 총 617억원을 늘려 1,617억원을 반영했다. 도 주요 사업 신규 예산도 눈에 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44억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5억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43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농림수산식품위에서는 고랭지배추 수급안정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 신규 21억원을 확보하고, 동해안형 수중 해삼섬 조성사업 2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등 난항 중인데다 12·19 대선이 격화돼 증액심사가 대선 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전 단계인 상임위 예산 확보는 성공적이라는 평이다. 이 때문에 도와 도 정치권의 협력이 예산확보라는 결실을 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달부터 여야 상임위원과 예결위원들을 수시로 접촉하며 예산 확보를 당부하는 등 '국회 잠행'에 나섰다. 배진환 도 기획조정실장과 예산파트 공무원들도 배수진을 치고 예산 증액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이재(동해-삼척) 의원, 문방위 소속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부처 장차관과 실무자들을 수시로 접촉하며 도 관련 예산확보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김진선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을 만나 올림픽 예산 확충을 이끌어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난항이 안타깝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임위 예산은 성공적이었다"며 "조만간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도와 도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민왕기기자 wanki@

동서고속道 국비 577억 증액 '아직 배고파'

내년 사업비 2,000억대 불과

2015년 말 개통 달성 어려워

3년간 5,000억이상 투자돼야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의 내년 사업비(국비)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의에서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매년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자해도 2015년 말 개통은 어려워 사업비 대폭 증액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는 동홍천~양양 구간의 내년 사업비를 정부가 제출한 1,423억원보다 577억원 많은 2,000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동홍천~양양 구간 내년 총 사업비는 착공 후 처음으로 4,000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홍천~양양 구간 공사는 2009년 착공 후 그동안 턱없이 적은 사업비가 배정돼 내년부터 매년 4,000억원이 투자돼도 2015년 개통은 불가능하다. 2015년 개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5,000억원 이상씩이 투자돼야 한다.

동서고속도로는 당초 2010년에 완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소극적 투자로 개통 시기가 2012년, 2015년으로 2차례나 연기된 상태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이 사업을 핵심선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대대적인 투자가 기대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동서고속도로 개통 시기 지연은 설악권에 예정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장기간 보류돼 있거나 영동권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서고속도로 모든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양양 이동시간은 1시간30분대, 춘천~양양은 1시간 이내, 춘천~강릉도 1시간20분대로 단축된다. 또 이 고속도로는 양양군 서면 범부리(양양분기점)에서 강릉 및 속초로 연결되는 동해고속도로와 만나, 높은 물류비용에 막혔던 설악권 및 중부권 개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고속도로는 현재 강원 내륙권과 설악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국책 SOC사업이다. 이 고속도로 개통이 2015년을 넘기면 강원내륙권과 설악권은 '침체 탈출의 기회'로 삼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특수'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올 연말이면 동서고속도로와의 분기점까지 연결되는 동해고속도로 사업 효과도 반감된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동서고속도로 사업비와 함께 동해고속도로 사업비도 761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도내 국도 11개 구간에 대한 예산도 953억원 늘어난 4,704억원을 반영했다. 이규호기자 hokuy1@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15일 오후3시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2012 건설산업 CEO 제주 연찬회'에 참석.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제품·녹색 신기술 페스티벌

강원 에코 홈페어 2012

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도와 춘천시 등 18개 시·군이 후원하는 '강원 ECO(에코) 홈페어 2012-강원주택건설건축박람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나흘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도내 주택·건설·건축 관련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1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를 비롯해 18개 시·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신공법·신기술이 설치된 부스를 둘러보고 자치단체에 적용할 대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개막…홍보효과 '최고'

강원 에코 홈페어 2012-강원주택건설건축박람회는 29일 오후2시 춘천 호반체육관 야외 특설행사장에서 화려하게 개막된다.

이번 박람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맞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주택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주택·건설업계에서 생산하는 주택 소품 및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강원 에코 홈페어는 도내 유일의 주택·건설·건축박람회로 녹색성장의 중심, 강원도의 녹색건설 및 건축자재 소개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품대상 품목은 △건축자재(바닥재·내장재·지붕재·외장재·구조재·도장재·방수·단열재·방음) △가구 및 인테리어(인테리어 가구·생활가구·사무용 가구·전통가구·DIY가구·사물함·가구 하드웨어·벽난로·침장류·블라인드·스크린·인테리어 소품) △전원주택 및 주택정보 분야(목조주택·스틸하우스·펜션·모델하우스·실외 리모델링) △생활가전 및 디지털 홈 분야(가전·도어록·홈시큐리티·홈네트워크시스템) △조경 및 공공시설 분야(실내 조경·잔디·펜스·정자·놀이시설·수목보호대·옹벽) △욕실 및 주방분야(위생도기·욕조·샤워기·샤워부스·욕실가구·스토브·사우나부스·시스템부엌가구) 등이다.

지난해에는 각 부스에서 진행된 상담만 총 3,500여 건에 달했으며 현장에서 이뤄진 거래는 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상담실적까지 포함하면 수십억원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기회를 통해 자생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지역 제품도 수도권 제품만큼 우수하고 기술력도 갖췄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에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택·건설·건축 관련 제품을 보유한 업체가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공사를 준비하는 기업에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업체·주민 소통의 장

강원 에코 홈페어 2012-강원주택건설건축박람회는 도내 홈 인테리어 관련 우수 제품을 한곳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전시회로 현장에서 계약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 최고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각 업체 간 교류와 업무협의, 판매, 계약 등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건축인들에게 홍보 기회 제공 및 관로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반 가정에서 관심을 갖는 인테리어 관련 자재 및 공예품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도 가능하다. 박람회 사무국은 현재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막바지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일 내로 참가업체를 최종 확정한 후 곧바로 부스 제작에 들어간다.

강원 에코 홈페어 2012-강원주택건설건축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홈페이지(http://ecohomefair.kr)에서 출품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팩스(070-7016-1145)로 제출해야 한다. 전화 문의는 박람회 사무국(070-7098-8381)으로 하면 된다.

강원 에코 홈페어 2012-강원주택건설건축박람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와 건설·건축 관련 종사자의 신청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관람 문의가 이어지면서 전시 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최대 1만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지난해 열린 강원 에코 홈페어 2011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설치된 부스를 둘러보며 거래 및 상담을 하고 있다. 강원일보DB

강원주택건설건축박람회 29일부터 나흘간 춘천서 열려

현장에서 계약까지 원스톱 … 지난해 상담 수천건 실적 수십억원대

지역기업 우수성 홍보 효과 커 참가 희망업체 막바지 신청 잇따라

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도 높인다

경기장·진입도로 투자비용 1조원대로 결정돼 설계 돌입

지역경제 도움되도록 공익-수익성 조화·투자 전략 반영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과 경기장 진입도로를 위한 투자비용이 총 1조원대 초반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수천억원이 투자되는 경기장 설계와 사후 활용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오후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회'에서 경기장과 진입도로에 대한 적정 투자 규모를 총 1조원대라고 밝혔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의 9,152억원보다 다소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KDI의 검토 결과를 보완하고 이달안에 투자액을 확정해 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와 개최지 시·군은 2,636억원을 경기장과 진입도로 공사비용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 이번 검토 결과는 국회의 내년 예산심의에서도 반영될 예정이다.

경기장 및 진입도로 사업 규모 윤곽이 잡힘에 따라 도는 이달 안에 설계에 착수한다. 특히 경기장에 대해서는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경기장 사후활용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상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는 스피드스케이팅장과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루지·봅슬레이 경기장 등을 신설해야 한다. 원주로 이전하거나 대학에서 사용할 2개의 아이스하키장은 활용방안 연구에서 제외된다.

도가 사후 활용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올림픽 이후 경기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 도와 시·군의 재정을 압박하는 '제2의 알펜시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활용방안 마련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경기장 위치 확정이 늦어져 활용방안 마련이 늦게 시작됐다"며 "내년 3월까지 1단계로 활용방안을 마련해 설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사후 활용방안 마련 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경기장 운영 주체, 민간자본 투자유치 전략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관계자는 "성공적인 올림픽은 대회 이후에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장 운영비는 물론 지역경제와 체육, 문화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2012. 11. 15(목) 강원일보】 - ③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제품·녹색 신기술 페스티벌

/ 박람회 참여업체 /

단열창호의 절대강자 매년 빠짐없이 참여

춘천 (주)비룡건업

강원 에코 홈페어 2012-강원주택건설건축박람회에 참여하는 춘천의 (주)비룡건업(대표 : 박광구)은 단열복합창호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단열복합창은 알루미늄 프로파일과 폴리스틸렌폼 소재에 원목무늬 전사처리를 한 단열재를 결합해 다양한 컬러와 인테리어적 가치를 높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신소재로 개발된 제품이다. 특히 일반 알루미늄 창호와 하이샤시 창호에 비해 단열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뿐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 강원 에코 홈페어에 개근하고 있는 (주)비룡건업은 매년 지자체, 관련 업체, 관람객 등을 포함해 총 100여회에 걸쳐 상담을 진행했고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박광구 대표는 "지난해 주택건설건축박람회 참여로 큰 홍보효과를 얻어 공사 주문물량이 늘어났다"며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과 업그레이드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업체로 도민과 지자체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자재 전문 최첨단 설비·기술력 갖춰

원주 (주)장성산업

2012 주택건설건축박람회의 참여업체인 원주의 (주)장성산업(대표 : 김천수)은 친환경 토목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도로, 하천, 택지,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국가산업 전반에 필요한 토목자재를 만들며 최첨단 설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조공법도 개발하고 있다.

토목 분야의 제품으로는 보강토 블록, 식생 옹벽블록(소형·대형), 식생 축조블록 등이 있으며 환경 분야에는 하천호안블록(육각생태, 환경생태, 식생핀블록, 새굴방지블록), 황토생태블록, 식생매트 등이 있다. 도시 분야는 꽃잔디블록, 장애인 점자블록, 애니 페이브(세이프, 포러스, 소일 페이브)가 생산된다.

장성산업은 새로운 차원의 제품과 서비스로 성장을 추구해 왔으며 앞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김천수 대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자원재활용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참가업체가 관람객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및 설명을 하고 있다.

◇행사장이 많은 방문객으로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북적이고 있다.

◇지난해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에코 홈페어 2011 개회식.